“전법의 사표, 큰스님이 그립습니다”

지오 대종사 영결식, 범어사 보제루서 엄수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등
3000여 사부대중 추모 행렬
후학들 “가르침 새기며 정진”
49재 8월 14일 서울 불광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추운 겨울이 온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름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스님께서 가시고 난 지금에야 비로소 스님의 법향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정혜당 지오 큰스님이시여, 부디 극락왕생하옵고 다시 이 땅에 중생 제도하는 거룩한 빛으로 돌아오소서!”

후학 양성과 역경(易經) 불사로 전법행의 사표가 되어온 대강백 정혜당 지오 대종사의 영결식이 7월 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엄수됐다. 범어문도장으로 진행된 영결식은 △명종5타 △개식 △삼귀의 △영결법요 △행장소개 △추도입정 △법어 △영결사 △추도사 △조사 △조가 △헌화 △조의 및 조전 소개 △상좌대표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영결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원로의원 정여 스님, 주지 보운 스님, 중앙종회의원 무관 스님, 석산 스님을 비롯해 금하광덕문도회 문장 지정 스님 등 문도회 스님과 용인 관음사 주지 대혜 스님, 조원호 불광법회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해 추도했다.

지유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 생로병사 온갖 고통에 괴로움을 겪는다. 육신을 버리고 집착을 여의어 고통에서 모두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지오 대종사를 추모했다.

금하광도문도회 문장 지정 스님은 영결사에서 “스님께서는 교학에 밝은 혜안으로 젊은 시절부터 후학 양성과 역경 저술에 노력하신 대강백이자 불교계에 모범을 보이신 수행자”라며 “정토에 가셔서 잠시 휴식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어지려운 사바세계를 불광정토(佛光淨土)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슬픔을 삼켰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범어사 강당에 여전히 큰스님의 음성이 남아 있고 책상에는 스님의 온기가 남아 있다”며 “스님과 함께한 옛 일이 오늘처럼 생생한데 어찌 이 모든 것을 두고 세연을 다하셨습니까? 너무나 이른 작별”이라고 추도사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서둘러 떠나신 만큼 속환사바하시어 대기대용의 설법을 토해주시길 청한다”고 말했다.



대강백 정혜당 지오 대종사의 영결식이 7월 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엄수됐다.

조원호 불광법회장은 “스님께서 법상에서 사자후를 토하는 모습은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의 화신인 듯했다”며 “열반하기 직전까지도 역경에 매진해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펴내신 것은 오로지 중생에게 법음을 전해주시겠다는 보리심의 발로이자 이 시대 불교의 사명인 전법행의 사표”라고 상찬했다.

상좌를 대표해 대혜 스님은 “은사스님이 걸어오신 수행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자 한다”며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수행해 조금이나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영결식 후 사부대중은 인로왕번과 만장기를 들고 장의행렬을 장엄하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으며, 스님의 법구는 범어사 경내를 돌아본 후 연화대로 이운됐다. 법구가 연화대에 안치된 뒤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화의식이 진행됐고, 대중은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고 외치며 흐느꼈다. 뜨거운 불길 속에 스님의 법구는 마지막으로 전하는 소리 없는 법문이 되어 금정산 아래 흩어졌다.

정혜당 지오 대종사는 1947년 음력 10월 7일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1970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광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2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3년 범어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1975년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 역경사를 수료했으며, 1976년부터 40여 년간 해인사, 범어사, 송광사, 통도사, 대만 묘종사, 중국 안휘성 감로사, 기원선사, 중국 양주 고민선사 등 제방 선원에서 35안거를 성만했다. 스님은 범어사 제97, 98회 보살계 수계법회 유나,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범어사 승가율원 율원장,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스님은 6월 27일 오후 1시 32분 범어사 서지전에서 임종게 ‘신수피염의(身雖披染衣)하나 심의비정색(心衣非定色)이라. 아금탈양의(我今脫兩衣)하니 불공수자나(佛恐羞自裸)이라. 몸은 비록 염의를 걸쳤으나 마음의 옷은 정해진 색이 없어라. 내가 지금 두 옷을 다 벗어버리니 부처가 나신(裸身)이 부끄러워 도망가네’를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세수 77세, 법랍 54년.

스님의 저서로는 〈사성체경〉 〈팔성도경〉 〈치선병비요경〉 〈불자독송집〉 〈불교교리(구사 유식 5위 75과 100법)〉 〈부처님 법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리(불설법멸진경)〉 등이 있다.

한편, 지오 대강백의 49재는 7월 3일 용인 관음사 초재를 시작으로 10일 2재, 17일 3재, 24일 4재, 31일 5재, 8월 7일 6재가 봉행되며, 49재는 8월 14일 서울 불광사에서 엄수된다.

부산 생명나눔 생명존중 강좌

7월 21일, 서면 영광도서 8층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7월 21일 오후 1시 부산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 -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개최한다. 부산 생명나눔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강좌는 생명나눔과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강사진은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과 복춘희 前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장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접수한 수강자 전원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이 주어진다.

부산 생명나눔은 “장기이식분야 의학이 발전해도 이식에 필요한 장기의 부족이 많은 환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개념과 장기기증에 대해 알려 불자와 대학생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051)853-042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연등문화제, 25만 명 즐겨”

부산불교연합회 6월 30일 부산연등회 실무 평가회


부산불교연합회가 6월 30일 부산 더파티 시청점에서 개최한 불기2567년 부산연등축제 회향 실무자 평가회.

올해 ‘불도(佛都) 부산’을 장엄한 부산연등문화제에 25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6월 30일 부산 더파티 시청점에서 ‘불기2567년 부산연등축제 회향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는 부산불교연합회가 부산연등축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실무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평가회서는 올해 부산연등축제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체험한마당과 소원등 달기 등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형 장엄등과 전통등 특별전 등 전시 관람에는 총 3000여 명이 찾아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부산연등문화제 기간에는 평일 1만 명, 주말 3만 명 등 총 25만 명이 찾았으며, 시민들은 소원등을 1만여 개를 달아 불우이웃돕기에도 동참했다. 소원등 성금은 이달 중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느티떡 및 호국영령 위령재, 관불의식을 여법하게 진행해 부산연등회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선 사항으로는 전통등 강습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찾아가는 강습회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전통등 제작 기술을 보급해 특별전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특별전 전시장소도 접근성과 대중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 부산연등회는 행사 일시와 장소가 갑자기 바뀌면서 출발시간 지연 및 좁은 행사장 동선 등 크고 작은 차질이 발생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시민들과 함께 동참하는 축제를 원만히 회향한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공로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행사 중에 다소 준비와 진행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욱 여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회에서는 부산연등축제를 빛낸 우수단체 시상과 불기2568년 부산연등축제 아이디어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우수단체는 여래원선이 선정됐으며, 아이디어 최우수상은 권수혁 내원정사 신도가, 우수상은 김진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이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김진명 작가 초청특강

‘어떤 힘을 기를 것인가’ 주제로


홍법사가 7월 1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개최한 초청 특강에 나선 김진명 작가.

홍법사(주지 심산)가 7월 1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김진명 작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인생, 어떤 힘을 기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은 홍법사 개산 20주년을 기념하며 명사 초청을 통한 인문학의 깊이를 함께 누리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김진명 작가는 600만부 밀리언셀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자이자 〈황태자비 납치사건〉 〈하늘이여 땅이여〉 〈천년의 금서〉 등 수많은 작품으로 대중과 호흡해왔다. 특강은 환영사 및 작가 소개,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강 이후 김진명 작가의 신간 〈풍수전쟁〉 친필 사인전도 진행됐다.

김진명 작가는 “인류는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생존 경쟁에 휘말리고 힘을 키워야만 한다. 전 세계인들은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런 노력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에 어떤 힘이 가장 좋은지 찾고 길러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힘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식과 지위 돈 등 외면의 힘이다. 외면의 힘은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 자신을 상실한다. 이와 반대는 내면의 힘이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위해 자신이 손해를 받고 불편함도 감수하는 인류애가 불교다. 인류의 스승들은 약자와 동행하며 선행과 자비를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작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인연이 홍법사를 찾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 함께하며 특강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생 신도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를 초청해 이 공간이 더욱 새롭고 뜻 깊게 느껴진다”며 “오늘 특강은 김진명 작가의 사상을 직접 듣고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한 자리를 열어주신 주지스님께 감사하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